

외국인 카지노 매출 하락·출국자 감소 영향 관광진흥기금 조성 직격탄

출국납부금 수입 전년보다 80-90% 감소 예상
외국인 카지노 8개중 4개업체 영업중단 상태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외국인 카지노 매출 감소와 출국자 감소로 인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계획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보세판매장(면세점)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으나 전국 형평성 논리에 부딪쳐 연내 도입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국가·제주도 출연금과 도내 카지노 업체 매출액의 1~10%와 출국납부금(출국시 1만원)으로 조성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카지노 475억원, 출국납부금 수입 126억원 등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 590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재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카지노 및 출국납부금 수입을 지난해만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국제항공노선이 일부 중단되거나 전면 중단되면서 출국납부금 수입이 전년보다 80-9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도 올해 1/4분기 358억원으로 전년 483억원보다 125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달 현재 4개 외국인 카지노가 휴업하고 있어 올해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1월 중국 춘제에 중국인들이 제주에 와서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상반기 매출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 하늘길이 닫혀 카지노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카지노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

련,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기재부에서 전국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어 면세점 특허수수료 전출은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특히 도내 지정면세점인 경우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영업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특허수수료 전출 요구 시 도내 면세점계의 생존까지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내 L면세점인 경우 2·3·4월 매출이 지난해 대비 90% 급감했다. 국내 코로나 19사태가 안정되더라도 정부가 일시중단한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허용해주지 않을 경우 외국인 고객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 카지노 매출 감소와 출국자 감소로 인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다만 "앞으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코로나19 여파 일자리 경쟁 치열

제주시 공무원 15명 채용 431명 몰려...28.7대 1 기록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공무원 경쟁이 어느해보다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5명을 뽑는 제1회 공무원 공개채용에 431명이 응시해 2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제주시의 제1회 공무원 경쟁률 7.6대 1, 제2회 7.4대 1, 제3회 경쟁률이 9대 1이었음을 감안하며 눈에 띄게 상승한 수치다.

직종별로는 제주국민체육센터 사

용료 징수와 매표관리 분야 1명 모집에 135명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시청사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2명 모집에 45명이 응시해 22.5대 1, 제주보 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1명 모집에 27명이 응모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시 13개 근무예정부서 가운데 한 자릿수의 경쟁을 보인 직종은 관광통역안내사(영어) 9대 1, 한라수영장 기계실·보일러실 운영 2대1로

단 2곳 뿐이다.

이처럼 공무원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새로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 여파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서류심사 후 필기시험을 치르던 데서 올해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채용일정을 맞추면서 서류심사를 필기시험 이후에 진행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시는 이들 공무원 응시자를 대상으로 오는 9일 필기시험과 다음 달 3일 면접을 거쳐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ms@ihalla.com



2020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6일 오후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이용곤(앞쪽 왼쪽 네번째) 한라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독자권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민 목소리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2020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6일 출범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 고광언·홍인숙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 출범했다.

한라일보는 지역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는 제주도민 24명을 2020 독자권익위원으로 위촉하고 6일 오후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첫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서 이선화 위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부위원장에 고광언·홍인숙 위원, 간사에 신승훈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용곤 한라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독자권익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졌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어 이 시기에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며 “편집국은 사장도 건들지 못하는 곳이지만, 독자권익위원회는 그것이 가능한 기구다. 앞으로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해 한라일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선화 위원장은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의 시각과 별도로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말은 독자권익위원회가 도민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신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평소 위원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보 형식으로 피력하게 된다.

다음은 독자권익위원 명단(가나다 순).

▷강민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창용(제주특별자치도 체조협회장) ▷고광언((사)제주

- 중독예방교육원장) ▷고석찬(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장) ▷고승화(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영호(영통가 대표) ▷고종철(KT 제주고객본부 사업지원부장) ▷김병수(제주지방경찰청 시민청문관) ▷김순보(케이에스메이트 제주센터장) ▷김은미(미서비스아카데미 원장) ▷김은정(제주연구원 위촉연구원) ▷김정학(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주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태석(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만석((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법학박사) ▷박애순(디자인리더 대표) ▷신승훈(돌집 by신대장 대표) ▷오명찬(제주글로벌센터장) ▷이병철(리헌기술단 부회장) ▷이선화(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장) ▷이정연(법률사무소 제주드림 대표변호사) ▷이정훈(SK 타미제주 대표) ▷현학수(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홍인숙((사)제주스포츠클럽아카데미 리더스협회 대표).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2020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지정업체
SANGMYEONG (주)상명엔지니어링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48-11
•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22-5(이호1동)
T. 740-0900, F. 744-4208

2020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용량	총 공사비	지원금	자부담
3kW	5,028	2,514	2,514

2020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참여기업	하자보증	사용 제품					
		모듈			인버터		
		모델명	원산지	효율(%)	모델명	원산지	효율(%)
(주)상명엔지니어링	5년	(주)에스에너지 SN370M-32	한국	19	(주)다쓰테크 DSP-123K6-OD	한국	96.47
		SN375M-32	한국	19.2			
		SN380M-32	한국	19.5			

(한림읍 금능리 지역업체, 제주항토기업)

※ 유사 영업에 주의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
JEJU ENERGY CORPORATION